

유란시아서

<< [제 125 편](#) | [부분](#) | [내용](#) | [제 127 편](#) >>

제 126 편

고난의 두 해

126:0.1 (1386.1) **예수**가 땅에서 일생 동안에 겪은 모든 체험 가운데, 열네 살 때와 열다섯 살 때가 가장 어려웠던 해였다. 자기의 신성과 운명을 비로소 깨달은 뒤에, 그에게 깃드는 **조절자**와 상당히 많이 교통하기 전에, 이 두 해는 **유란시아**에서 파란 많았던 일생에서 가장 시련이 많은 해였다. 큰 시험, 참 유혹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은 이 2년 동안이었다. 어떤 젊은이도 청년기의 혼란과 적응하는 문제들을 거치면서, **예수**가 어린 시절부터 청년이 되는 과도기에 겪은 것보다 더 쓰라린 시험을 겪지는 않았다.

126:0.2 (1386.2) **예수**가 젊은이로 성장하는 이 중요한 기간은 **예루살렘** 방문을 마치고 그가 **나사렛**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되었다. 아들을 다시 찾아왔다는 것, **예수**가 집으로 돌아와서 의무에 충실한 아들이 되었다는 것 — 언제라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— 그리고 그의 장래를 위하여 세운 계획에 그가 이제부터 더 반응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서 **마리아**는 처음에 행복했다. 그러나 물질적 망상,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이 가족이 지닌 긍지(矜持)의 밝은 빛을 오래 즐기도록 예정되지는 않았다. 금방 그 여자는 전보다 더 철저하게

미몽에서 깨어나야 했다. 소년은 점점 더 아버지와 함께 다녔고, 문제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으며, 한편 어째서 이 세상 일, 그리고 그와 **아버지** 일의 관계를 자주 번갈아서 숙고하는지 부모는 갈수록 더 이해가 가지 않았다. 솔직히 말해서, 그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, 참으로 사랑했다.

126:0.3 (1386.3) 나이가 들면서 **예수**는 **유대**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졌지만, 해가 지남에 따라서, 머리 속에서 **아버지**의 성전에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제들이 있다는 것에 차츰 의분(義憤)이 커졌다. **예수**는 진지한 **바리새**인과 정직한 서기관들을 크게 존경했지만, 위선적인 **바리새**인과 정직하지 않은 신학자들을 크게 경멸하였다. 성실하지 않은 모든 종교 지도자를 경시하였다. **이스라엘**의 지도층을 자세히 훑어보았을 때, 자기가 **유대**인이 기대하는 **메시아**가 되는 가능성을 좋게 보려는 유혹을 가끔 받았지만, 결코 그러한 유혹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.

126:0.4 (1386.4) **예루살렘**에서 성전의 현자(賢者)들 사이에 그가 공훈을 세운 이야기는 온 **나사렛**, 특히 회당 학교에서 예전에 그를 가르치던 선생들에게 흐뭇한 일이었다. 한동안, 사람마다 그를 칭찬하는 말이 입에서 그치지 않았다. 온 마을이 그가 어릴 때 보인 지혜와 칭찬할 만한 행동을 하나하나 열거하였고, **이스라엘**에서 그가 큰 지도자가 될 운명을 가졌다, 마침내 **갈릴리**의 **나사렛**에서 정말로 위대한 선생이 나올 것이라 예언했다. 그리고 그가 열다섯 살이 되어,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서를 정기적으로 읽도록 허락될 때를 모두가 기대했다.

1. 열네 살 되던 해 (서기 8년)

126:1.1 (1387.1) 이 해는 달력으로 열네 살이 되는 생일을 맞는 해이다. 그는 멍에를 잘 만드는 사람이 되었고, 캔바스와 가죽 다루는 일을 잘 했다. 급속히, 그는 또한 솜씨 있는 목수이자 가구공(家具工)이 되고 있었다. 이 해 여름에 그는 기도하고 명상하려고 **나사렛** 북서쪽에 있는 언덕 꼭대기까지 자주 다녔다. 그는 땅에서 자신을 수여하는 일의 성질을 차츰 더욱 자각하게 되었다.

126:1.2 (1387.2) 이 언덕은, 1백 년 조금 더 전에, “**바알의 산당**”이었고, 이제는 **이스라엘**의 이름난 성자 **시므온**의 무덤 자리였다. 이 **시므온**의 언덕 꼭대기에서 **예수**는 **나사렛**과 둘러싼 시골을 내려다보았다. **메기도**를 바라보고, **에집트** 군대가 **아시아**에서 처음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, 후일에 어떻게 또 다른 그런 군대가 **유다** 왕 **요시아**를 물리쳤는가 하는 이야기를 회상하곤 했다. 멀지 않은 곳에, **타나크**를 바라볼 수 있었고, 거기서 **드보라**와 **바락**이 **시세라**를 물리쳤다. 멀리 **도탄** 산을 볼 수 있었는데, 거기서 **요셉**의 형제들이 그를 **에집트**인의 노예로 팔았다고 가르침을 받았다. 다음에 그는 **에발**과 **게리짐**으로 눈을 돌리고 **아브라함** · **야곱** · **아비멜렉**의 전통을 스스로 열거하곤 했다. 이처럼 머리 속에서 아버지 **요셉**의 민족 역사와 전통에 있는 사건들을 돌이켜보고 곰곰이 살펴보았다.

126:1.3 (1387.3) 그는 회당 선생들 밑에서 상급 독서 과목을 줄곧 공부해 나갔고, 또한 동생들이 적당한 나이에 이르자 그들의 가정 교육을 계속했다.

126:1.4 (1387.4) 그가 다음 해 8월에 열다섯이 될 때 **예루살렘**으로 갈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, **예루살렘**에서 **예수**의 오랜 공부 과정에 드는 학비를 물려고, 이 해 일찍부터 **요셉**은 **나사렛**과 **가버나움**에 있는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따로 떼어 놓도록 주선하였다.

126:1.5 (1387.5) 이 해가 시작되자, **요셉**과 **마리아**는 맏아들의 운명에 관하여 자주 의심을 품었다. 그는 정말로 총명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지만, 몹시 이해하기 힘들고 헤아리기 어려웠고, 게다가 특별하거나 기적 같은 일은 하나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. 자랑스러운 어머니는 수십 번 숨을 죽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서, 아들이 어떤 초인간적이나 기적 같은 일을 해내는가 보려고 기대했지만, 언제나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 어머니는 몹시 실망하였다. 이 모두가 어머니를 낙심하게 하고, 아니 마음 아프게 하였다. 선지자, 그리고 약속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부름받은 사실을 증거하고,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함으로 신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증명한다고 그 시절의 경건한 사람들은 참으로 믿었다. 그러나 **예수**는 이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. 따라서 그의 앞날을 깊이 생각하면서 부모의 혼란이 꾸준히 늘어났다.

126:1.6 (1387.6) **나사렛** 가족의 나아진 경제 사정은 집 근처에서 여러 면으로, 특히 반반한 흰 판자들의 수가 늘어난 데서 나타났는데, 이것은 글 쓰는 판자로 쓰였고, 목탄으로 글을 썼다. **예수**에게 또한 음악 수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허용되었고, 그는 하프 켜기를 몹시 좋아했다.

126:1.7 (1387.7) 이 해 내내, **예수**는 “사람과 **하나님**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다”고 참으로 말할 수 있다. 가족의 전망은 좋아 보였고, 앞날은 밝았다.

2. 요셉의 죽음

126:2.1 (1388.1) 9월 25일, 운명의 그 화요일까지 만사가 순조로웠다. 이날 **세포리스**에서 달려온 한 사람이, **요셉**이 총독의 저택에서 일하다가, 기중기가 떨어져 몹시 다쳤다는 비극의 소식을 이 **나사렛** 가정으로 가져왔다. **세포리스**에서 온 사자는 **요셉**의 집으로 가던 길에 작업장에 멈추어 **예수**에게 아버지의 사고를 알렸고, 그들은 함께 집으로 가서 슬픈 소식을 **마리아**에게 알렸다. **예수**는 즉시 아버지에게 가고 싶었지만, **마리아**는 자기가 남편 곁으로 서둘러 가야 한다는 것 외에 아무 말에도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. 어머니는 그때 열 살인 **야고보**가 **세포리스**까지 자기를 따라가고 한편 **예수**에게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동생들과 함께 집에 남아 있으라고 지시했는데, 왜냐하면 **요셉**이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. 그러나 **요셉**은 **마리아**가 도착하기 전에, 부상(負傷) 때문에 죽었다. 그들은 **요셉**을 **나사렛**으로 모셔왔고, 다음 날 그는 선조들과 함께 묻혔다.

126:2.2 (1388.2) 전망이 좋고 앞날이 밝아 보였던 바로 그때, 겉보기에는 모진 손이 **나사렛** 가족의 머리를 내려쳤다. 이 집안의 일은 쑥대밭이 되었으며, **예수**와 그의 장래 교육을 위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. 이 소년 목수는 이제 막 만으로 열네 살이 되었고, 땅에서 육체를 입고서 신의 성품을 드러내라 하는, 하늘 **아버지**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, 또한 과부가 된 어머니와 일곱 동생과 태어날 아기까지 보살필 책임을 짚은 인간 성품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. 이 **나사렛** 젊은이는 이제, 이렇게 갑자기 아버지를

여윈 가족의 유일한 기둥이자 위로가 되었다. 한 인간 가족의 머리가 되고 동생들에게 가장(家長)이 되고 어머니를 부양하고 보호하며, 아버지의 집, 즉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가 알게 된 유일한 가정의 보호자로서 활동하는 데 따르는 책임은 무겁지만, 상당히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된다. 이렇게 이 책임을 아주 일찍 맡도록 이 운명의 젊은이를 강요할 자연스러운 사건들이 **유란시아**에서 일어나는 것이 허락되었다.

126:2.3 (1388.3) **예수**는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였고, 끝까지 충실히 수행해 나갔다. 적어도, 일생에서 한 가지 큰 문제이며 예상했던 곤경이 비극으로 해결되었다 — 이제는 사람들이 그가 랍비들 밑에서 공부하려고 **예루살렘**으로 가기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었다. **예수**가 “누구의 제자도 되지 않았다”하는 것은 언제나 참말이었다. 가장 낮은 어린이들한테서도 언제나 기꺼이 배우려 했지만, 그는 결코 인간적 근원으로부터 진실을 가르칠 권한을 얻지 않았다.

126:2.4 (1388.4) 아직까지, 태어나기 전에 **가브리엘**이 어머니를 방문한 사실에 대하여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. 대중에게 봉사하는 일이 시작될 때, 세례 받은 날에, 그는 이 말을 **요한**으로부터 들었을 뿐이다.

126:2.5 (1388.5) 해가 지남에 따라서, **나사렛**의 이 젊은 목수는 갈수록 모든 사회 제도와 종교 관습을 변함없는 이 방법으로 시험하게 되었다: 그것이 인간의 혼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? **하나님**을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게 하는가? 사람을 **하나님**께로 데려오는가? 이 젊은이가 인생에서 오락 및 사회적 면을 온통 소홀히 하지는 않았어도, 가족을 보살피는 것과 하늘에 계신 **아버지**의 뜻을 땅에서 행하려고 준비하는 것, 꼭 이 두 가지 목적에 그는 더욱 시간과 에너지를 바쳤다.

126:2.6 (1389.1) 이 해에는 겨울 저녁에 **예수**가 하프 켜는 것을 듣고,
(소년이 솜씨 좋은 이야기꾼이었으니까)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,
그리스 성서 읽는 것을 들으려고 이웃 사람들이 들리는 것이 관습이
되었다.

126:2.7 (1389.2) 죽을 때에 **요셉**이 어지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
때문에, 가정의 경제적인 일은 계속해서 썩 순조롭게 진행되었다.
예수는 일찍부터 날카로운 사업 판단력과 재무의 지혜를 가졌음을
보였다.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썼지만 검소했고, 저축하고 있었지만
관대했다.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현명하고 유능하게 관리하는 사람인
것이 판명되었다.

126:2.8 (1389.3) **예수**와 **나사렛** 이웃들이 이 가정을 즐겁게 만들려고 힘이
자라는 대로 무슨 일이든 했어도 **마리아**와 아이들까지 슬픔의
그림자로 덮여 있었다. **요셉**이 사라진 것이다. **요셉**은 특별한 남편이요
아버지였고, 모두 그가 없어 서운해하였다. 그에게 말을 하거나,
마지막 축복의 말씀도 들을 수 있기 전에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니
더군다나 비극인 듯하였다.

3. 열다섯 살 되던 해 (서기 9년)

126:3.1 (1389.4) 열다섯 살 되던 이 해 중반이 되어서 — **유대인**의 해가
아니라, 20세기 달력에 따라 시간을 계산하건대 — **예수**는 가족의
재정을 잘 운영하고 있었다. 이 해가 가기 전에 저축은 거의 사라졌고,
요셉과 이웃 **야곱**이 공동으로 소유했던 **나사렛** 집들 중에 하나를
처분해야 할 필요에 부딪쳤다.

126:3.2 (1389.5) 서기 9년, 4월 17일 수요일 저녁에, 그 집안의 아기 **룻**이 태어났고, **예수**는 힘이 자라는 데까지, 벅차고 특별히 슬픈 이 시련 기간에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위로하고 돌보느라고 애썼다. 거의 20년 동안 (대중 봉사를 시작할 때까지) **예수**가 어린 **룻**을 돌본 것보다 더 자기 딸을 귀하고 충실하게 사랑하고 기른 아버지는 없었다. 가족의 모든 다른 사람에게 그는 똑같이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다.

126:3.3 (1389.6) 이 해에, **예수**는 나중에 사도들에게 가르친 기도문 (祈禱文)을 처음으로 지었는데, 이것은 “주의 기도”로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다. 이것은 어떤 면에서 가족 제단이 진화된 것이었고, 그들은 여러 형태의 찬송과 몇 가지 형식의 기도를 가지고 있었다.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— 자기가 평소 즐겨 기도하는 것처럼 — **예수**는 큰 아이들에게 각자 자신의 표현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애썼지만, 그들은 그 생각을 헤아릴 수 없었고, 변함없이 그들이 외운 형식의 기도로 돌아가곤 했다. 나이 든 동생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도록 자극하는 노력으로, 제시하는 구절을 가지고 **예수**는 이들을 인도하려고 애쓰곤 했다. 뜻하지 않았는데, **예수**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제시하는 이 여러 구절로부터 대체로 만들어진 형태의 기도를 그들이 곧 모두 사용하게 되었다.

126:3.4 (1389.7) 마침내, **예수**는 가족의 각 식구가 즉석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리게 하려는 생각을 버렸다. 10월 어느 날 저녁에, 낮은 돌 식탁 위에 있는 작고 납작한 등불 옆에 앉아서, 가로 세로가 45 센티미터쯤 되는 한 조각의 반반한 백향목(柏香木) 판자 위에, 목탄 조각으로 기도문을 적었고, 그때부터 계속 이것은 표준 가족 기도가 되었다.

126:3.5 (1389.8) 이 해에 **예수**는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많이 고민하였다. 가족에 대한 책임은 **예루살렘**을 방문했을 때 “**아버지**의 일을 돌보라”는 지시에 응답하여 무슨 계획이라도 즉시 실행하려던 어떤 생각도 사실상 거의 없애 버렸다. 땅에서 아버지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 모든 다른 의무보다 우선해야 한다,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첫째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**예수**는 옳게 추리하였다.

126:3.6 (1390.1) 이 해가 지나는 동안에 **예수**는 이른바 “**에녹서**”에서 한 구절을 찾아냈는데, 이에 영향을 받아 나중에 **유란시아** 수여 사명을 위하여 “**사람의 아들**”이라는 용어를 호칭으로서 채택하게 되었다. 그는 **유대인**의 **메시아** 개념을 철저히 생각해 보았고 그런 **메시아**가 되지 않으리라 굳게 확신했다. 아버지의 민족을 몹시 돕고 싶어 했지만, 외국의 **팔레스타인** 지배를 타도하기 위하여 자신이 **유대인** 군대(軍隊)를 이끌 것이라고 결코 예상하지 않았다. 그는 자기가 결코 **예루살렘**에서 **다윗**의 왕좌에 앉지 않을 것을 알았다. 오직 **유대** 민족에게 영적 **구원자**나 도덕적 선생이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 믿지도 않았다.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도, 일생의 사명은, **히브리** 성서에 나타난 강렬한 소망과 **메시아**가 온다는 예언을 성취하는 것일 수 없었다. 적어도 **유대인**들이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해하는 것과 달랐다. 마찬가지로, 그는 결코 선지자 **다니엘**이 묘사했던 **사람의 아들**로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했다.

126:3.7 (1390.2) 그러나 세상의 선생으로 나설 때가 되었을 때, 자기를 무엇이라고 부를까? 그의 사명에 대하여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? 그의 가르침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를 무슨 이름으로 부를 것인가?

126:3.8 (1390.3) 이 모든 문제를 머리 속에서 이모저모 살피는 동안, 그는 **나사렛**의 회당 도서관에서, 그가 공부하고 있던 묵시록들 사이에서

“**에녹서**”라고 부르는 이 필사본을 찾아냈다. 옛날에 살았던 **에녹**이 그 책을 쓰지 않았음을 확실히 알았지만, 그 책은 그에게 매우 흥미를 자아낸 것이 드러났고, 그는 여러 번 다시 읽었다. 특별히 감명을 준 한 구절이 있었으니, “**사람의 아들**”이라는 이 용어가 나타난 구절이다. 이른바 이 **에녹서**의 저자(著者)는 이 **사람의 아들**에 대하여 더 이야기하고, 그가 땅에서 할 일을 적었는데, 인류에게 구원을 주려고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, 이 **사람의 아들**은 그의 **아버지**, 만물의 **아버지**와 함께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궁정을 거닐었다, 빈곤한 필사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러 땅으로 내려오려고, 그가 이 모든 위엄과 영광을 등지었다고 설명했다. 이 구절들을 읽는 동안에 (이 가르침과 섞이게 된 동부 신비주의 가운데 많은 것이 그릇됨을 잘 알았다), 그는 마음 속에서 응답했고, 머리 속에서, **히브리** 성서의 모든 **메시아** 예언 중에, 그리고 **유대인** **구원자**에 대한 모든 이론 가운데 아무것도, 겨우 부분적으로 인정된 이 **에녹서**에 감춰진 바로 이 이야기처럼 그토록 진실에 가깝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. 그는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, 시작하는 칭호로서 “**사람의 아들**”을 채택하기로 결심했다. 나중에 대중을 위하여 일을 시작했을 때, 그는 그대로 했다. **예수**는 어김없이 진실을 알아보는 능력을 가졌고, 겉보기에 무슨 근원에서 쏟아져 나오든지, 조금도 서슴지 않고 진실을 받아들였다.

126:3.9 (1390.4) 이때가 되어서, 앞으로 세상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하나하나 정리하였지만, 그는 이 문제들에 관해서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어머니는 그가 **유대인 메시아**가 된다는 생각에 아직도 끈질기게 집착하였다.

126:3.10 (1390.5) **예수**의 소년 시절에 이제 큰 혼란이 생겼다. 땅에서 이를 사명, “**아버지**의 일을 돌보는 것,” 온 인류에게 **아버지**의 사랑하는 성품을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무엇인가 해답을 얻었으므로, 그는

민족의 **구원자**, 즉 **유대인** 선생이나 임금이 온다고 언급하는 성서의 여러 구절을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. 이 예언들이 무슨 사건을 언급했는가? 그는 **유대인**이 아닌가? 혹은 **유대인**인가? **다윗**의 집 출신인가, 아닌가? 어머니는 그렇다고 단언했고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. **예수**는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결정했다. 그러나 선지자들이 **메시아**의 본질과 사명을 혼동했는가?

126:3.11 (1391.1) 결국은, 어머니가 옳을 수도 있을까? 대부분의 문제에서 과거에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어머니가 옳았다. 그가 새로운 선생이고 **메시아**가 아니라면, 땅에서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**예루살렘**에 그러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자기가 **메시아**를 알아볼 것인가? 더 나아가서, 이 **유대인 메시아**와 그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? 일생의 사명을 시작한 뒤에, 그는 가족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? **유대인** 연방 및 종교와 가지는 관계는? **로마** 제국과 그의 관계는? 이방인과 그 종교에 대해서는? 목수의 벤치에서 계속 일하며, 자신과 어머니와 배고픈 다른 여덟 동생의 입에 풀칠하기 위하여 힘들게 생활을 꾸려 나가면서, 이 중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, 이 어린 **갈릴리** 사람은 머리 속에서 이리저리 살피고 심각하게 생각하였다.

126:3.12 (1391.2) 이 해가 저물기 전에, **마리아**는 가족의 저축한 돈이 줄어드는 것을 깨달았다. **마리아**는 비둘기 장사를 **야고보**에게 넘겼다. 곧 그들은 둘째 송아지를 샀고, **미리암**의 도움을 얻어 **나사렛** 이웃들에게 우유를 팔기 시작했다.

126:3.13 (1391.3) **예수**가 깊이 생각에 잠기는 것, 기도하려고 언덕 꼭대기까지 자주 나들이하는 것, 그리고 때때로 **예수**가 떠올린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은 어머니를 속속들이 놀라게 했다. 어떤 때 어머니는 소년이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가, 결국은 그가 약속의 아이요,

어떤 면에서 다른 소년들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, 두려움을 가라앉히곤 했다.

126:3.14 (1391.4) 그러나 **예수**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지 않는 것, 모든 생각을 세상에, 아니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내보이지 않는 것을 배웠다. 이 해부터 계속, **예수**가 머리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밝히는 일이 꾸준히 줄어들었다. 다시 말해서, 보통 사람이 파악할 수 없는 일, 그로 하여금 특이하거나 보통 사람과 다르게 보이게 만들 것에 관하여 말하는 일이 적었다. 겉모습 어디를 보아도 그는 평범하고 전통적인 사람이 되었다. 하지만 그는 누군가가 그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기를 몹시 바랐다. 믿을 수 있고 비밀을 털어놓을 친구를 몹시 바랐지만, 그의 문제들은 너무 복잡하여 인간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다. 그 특별한 상황이 독특하여 그는 짐을 혼자 질 수밖에 없었다.

4. 회당에서 한 첫 설교

126:4.1 (1391.5) 만 열다섯 살이 되는 생일이 다가오자, **예수**는 안식일에 회당 설교단에 정식으로 설 수 있었다. 연설할 사람들이 없을 때, 성서(聖書)를 읽어 달라고 전에 여러 번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, 이제 율법에 따라서 그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날이 왔다. 따라서 열다섯 살 되는 생일이 지난 뒤 첫째 안식일에, 하잔은 회당의 아침 예배를 **예수**가 인도하도록 주선하였다. **나사렛**의 신앙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을 때, 이미 성서의 구절을 골랐으므로, 이 젊은이는 일어서서 읽기 시작했다:

126:4.2 (1391.6) “주 **하나님**의 영이 내게 다가오시니, 주가 내게 기름을 부으셨음이라. 온유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,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, 포로가 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, 영적으로 갇힌 자를 풀어 놓으라고 나를 보내셨음이라, **하나님**이 은혜의 해, 그리고 우리 **하나님**이 정한 빛 청산의 날을 선포하며, ^[150] 통곡하는 자를 모두 위로하고, 저희에게 재 대신에 아름다움을, 통곡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, 슬픈 마음 대신에 찬양의 노래를 주어서, 이것으로 주가 영광을 받도록 저희를 주가 심으신 것, 올바름의 나무라 일컬으리라.

126:4.3 (1392.1) “살 수 있도록 너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찾으라, 주, 만군의 **하나님**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.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할지며, 성문(城門)에서 판결을 정하라. 어쩌면 주 **하나님**이 **요셉**의 남은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.

126:4.4 (1392.2) “너희 자신을 씻고, 너희 자신을 깨끗이 할지니라. 내 눈앞에서 너희가 행하던 악을 던져 버리고, 악행을 그치고 선행하기를 배우라. 정의(正義)를 구하고 억압받는 자를 놓아주라. 아비 없는 자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간구하라.

126:4.5 (1392.3) “무엇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 나아와서, 온 땅의 주 앞에 경배하리요? 태운 제물을 가지고, 한 살 된 송아지들을 가지고 내가 그 앞에 나아가리요? 산양 수천 마리나 양 1만 마리나 강처럼 많은 기름으로 주가 기뻐하실까? 내 허물 때문에 첫아들을, 내 혼의 죄 때문에 내 몸에서 난 열매를 드리리요? 아니라, 주가 우리에게 보이셨음이라. 아 사람들아, 무엇이 좋은가. 오직 공평하게 대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너희 **하나님**과 함께 겸손히 걷는 것밖에, 주가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?

126:4.6 (1392.4) “그러면 땅 위의 둥근 하늘에 앉으시는 **하나님**을 너희가 누구와 견주겠느냐? 너희의 눈을 들어 이 모든 세상을 누가

창조했는가, 누가 그 무리들을 세어서 생기게 하며, 이름으로 저희
모두를 부르는가 보라. 위대한 힘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을 행하며, 힘이
강한즉, 한 가지도 실패하지 않느니라. 그는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,
지친 자에게 힘을 더하시니라. 두려워 말라, 내가 너희와 함께
있음으로다. 절망하지 말지니, 내가 너희의 **하나님**인 까닭이라. 나는
너희에게 힘을 주겠고, 너희를 도우리라. 옳도다, 내 정의의 바른
손으로 내가 너희를 들어 올리리니, 내가 주 너희의 **하나님**인
까닭이라. 나는 너희의 바른 손을 잡고 너희에게 이르리니, 두려워
말라, 내가 너희를 도울 것임이라.

126:4.7 (1392.5) “그리고 주가 말씀하시되, 너는 나의 증인이요, 모두가
나를 알고 믿으며, 내가 **영원자**임을 알도록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. 나,
내가 주이니, 나 외에 아무 **구원자**가 없느니라.”

126:4.8 (1392.6) 이렇게 읽고 나서, 그는 앉았다. 사람들은 집으로
돌아가면서 그렇게 품위 있게 그가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했다. 그렇게
대단히 엄숙한 그의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본 적이 없었다. 그토록
열심이고 그렇게 진지한 그의 목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었다. 그렇게
남자답고 결의가 굳고, 그토록 권위 있는 그의 모습을 지켜본 적이
없었다.

126:4.9 (1392.7) 이 안식일 오후에, **예수**는 **야고보**와 함께 **나사렛** 언덕으로
올라갔고, 집으로 돌아왔을 때, 두 개의 반반한 판자에 목탄으로
십계명을 **그리스어**로 썼다. 나중에 **마르다**는 이 판자들을 색칠하고
꾸몄고, 이것들은 오랫동안 **야고보**의 작은 작업 벤치 위에, 벽에 걸려
있었다.

5. 재정 문제와 싸우다

126:5.1 (1392.8) 차츰차츰 **예수**와 가족은 몇 년 전의 소박한 생활로 돌아왔다. 옷과 먹을 것조차 더 간소해졌다. 젖과 버터와 치즈는 풍부하게 있었다. 철마다 밭의 소산을 즐겼지만, 달이 지날 때마다 더욱 검소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. 아침 식사는 아주 간단했고, 제일 좋은 음식은 저녁 식사를 위해서 남겨 두었다. 하지만 이 **유대인**들 사이에서 가난은 사회에서 열등함을 의미하지 않았다.

126:5.2 (1392.9) 이미 이 소년은 그 시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거의 통달하고 있었다. 집과 들과 작업장에서 얼마나 삶을 잘 이해했는가는 나중에 그의 가르침에서 나타나며, 그 가르침은 온갖 단계의 인간 체험을 피부로 겪었음을 아주 넉넉히 드러낸다.

126:5.3 (1392.10) **나사렛** 하잔은 **예수**가 위대한 선생, 아마도 **예루살렘**에서 이름난 **가말리엘**의 후계자가 되리라는 믿음을 계속 지녔다.

126:5.4 (1393.1) 겉보기에, **예수**의 일생을 위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듯하였다. 지금 펼쳐진 사태를 보건대 앞날은 밝게 보이지 않았다.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다. 현재의 임무를 잘 수행하였고, 생애의 정거장에서 눈앞에 닥친 여러 책임을 충실하게 처리하면서, 하루하루 계속 살았다. **예수**의 일생은 낙심한 모든 이상주의자에게 영구한 위로가 된다.

126:5.5 (1393.2) 날품팔이하는 보통 목수의 수입은 천천히 줄어들었다. 이 해의 마지막이 되어서, **예수**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서 하루에 약 25센트에^[151] 해당하는 돈을 벌었다. 다음 해가 되어서, 회당의 부과금과 반 세겔의 성전 세금은커녕, 국민 세금을 물기에도

벽쳤다. 이 해에, 세리는 **예수**한테서 여분의 세금을 짜내려고 애썼고, 하프를 가져가겠다고 올려대기도 하였다.

126:5.6 (1393.3) **그리스어** 성서의 사본이 발견되어 세리에게 빼앗길까 두려워서, **예수**는 열 다섯 살 되는 생일에, 주께 바치는 성년(成年) 헌물로서 성서를 **나사렛** 회당 도서관에 바쳤다.

126:5.7 (1393.4) 사고로 죽었을 때 **요셉**이 받을 돈에 대하여 소송이 있었고, **헤롯**에 대하여 취해진 상소에 대하여 **헤롯**의 판결을 받으려고 **세포리스**로 갔을 때, **예수**는 열다섯 살 되던 해 최고의 충격을 받았다. 전에 **세포리스**에서 회계원이 하찮은 금액을 제안했을 때, **예수**와 **마리아**는 상당히 큰 돈을 받으리라 희망했다. **요셉**의 형제들은 **헤롯** 본인에게 상소(上訴)했고, 이제 **예수**는 궁전에서 서서,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한 푼도 받을 것이 없었다고 **헤롯**이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. 그러한 부당한 판결 때문에, **예수**는 결코 다시는 **헤롯 안티파스**를 신뢰하지 않았다. 한때 **헤롯**을 “그 여우”라고 낚지시 비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.

126:5.8 (1393.5) 이 해와 그 뒤 몇 년 동안에 목수의 벤치 가까이에서 일했기 때문에 **예수**는 카라반 여객들과 섞이는 기회를 잃어버렸다. 가족의 소모품 상점은 이미 삼촌에게 넘어갔고, **예수**는 전적으로 집에 있는 작업장에서 일했으며, 거기서 가족을 보살피는 **마리아**를 도우려고 가까이 있었다. 이 무렵에, **야고보**를 낙타 휴식소에 보내서 세계 사정에 관한 정보를 모았고, 이렇게 그날의 소식을 얻으려고 애썼다.

126:5.9 (1393.6) 자라서 어른이 되면서, 그는 그 전과 그 후 시대에 보통 젊은이들이 겪었던 모든 갈등과 혼동을 겪었다. 가족을 부양하는 벅찬

체험은 게으른 명상이나 신비적 경향에 빠질 만큼 지나친 여유를 없애는 확실한 조치였다.

126:5.10 (1393.7) 이 해에 **예수**는 집 바로 북쪽에, 상당히 큰 땅을 빌려서 가족의 채소밭으로 나누어 주었다. 나이 많은 아이들은 저마다 개인의 밭이 있었고, 농사를 잘 지으려고 열심히 경쟁했다. 만형은 채소를 가꾸는 철에 밭에서 날마다 함께 얼마큼 시간을 보냈다. 밭에서 동생들과 같이 일하는 동안, 번거로운 생활을 피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시골에서, 모두가 농장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꿈을 **예수**는 여러 번 품었다. 하지만 그들은 시골에서 자라고 있지 않았다. 이상주의자일 뿐 아니라 철저히 실용적인 소년이었기 때문에, 문제를 발견하는 대로 영리하고 힘차게 처리해 나갔고, 자신과 가족을 닥친 상황의 현실에 적응시키며, 개별 및 집단의 소망을 가능한 최대로 만족시키도록 그들의 조건을 적응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였다.

126:5.11 (1393.8) **헤롯**의 궁전에서 일한 대가로 아버지가 받을 상당한 돈을 그들이 받을 수 있다면, 작은 농장 하나 사는 것을 보장할 만큼 넉넉한 밀천을 모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한때 **예수**는 실낱 같은 희망을 가졌다. 그는 가족을 시골로 이주시키는 이 계획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. 그러나 **요셉**이 받을 돈을 **헤롯**이 한 푼도 내주지 않으려 했을 때, 그들은 시골에서 집을 소유하는 꿈을 버렸다. 그 형편대로, 농장 생활의 체험을 많이 즐기려고 그럭저럭 애썼고, 이제 비둘기 외에도, 송아지 세 마리, 양 네 마리, 닭 한 떼, 당나귀 한 마리, 개 한 마리가 있었다. 잘 통제된 경영 계획 속에서, 작은 꼬마들까지도 수행해야 될 정규 임무가 있었고, 이것이 이 **나사렛** 가족의 가정 생활의 특징이었다.

126:5.12 (1394.1) 열 다섯 살이 되던 이 해가 저물 때, **예수**는 인간 존재에서 위험하고 어려운 그 기간을 거쳤는데, 이때는 온순한 어린이 시절과 다가오는 성년기를 의식하는 사이의 과도기였고, 성년기에는 고귀한 인품을 기르는 상급 체험을 얻기 위하여 책임과 기회가 늘어난다. 머리와 몸이 자라는 기간은 끝났고, 이제 이 **나사렛** 젊은이의 진짜 생애가 시작되었다.

[150]: 126:4.2 이사야 61:1.

[151]: 126:5.5 이것은 이 책을 쓰던 당시, 1932년 대공황 때 미국 제조업 임금(1주에 18달러)의 10분의 1 정도이다.
